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2월 1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성과관리고객만족팀 이귀현 팀장(2110-5417), 강진영 사무관(5249)		

홍석우표 집단적 타성제거 가시적 성과 거두기 시작

- 2월중 장·차관, 실장급 지경부 지원 각종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해보기로 -

□ 지식경제부가 작년 11월 홍석우 장관 취임 이후 무역 1조달러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집단적 타성 제거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방안"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개월여간 추진해온 집단적 타성 제거 활동에 따른 변화를 보면,

○ 보고서 작성시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볼드체를 사용하는 습관과 보고서 모양내기는 완전히 사라짐

○ 행사준비시 간부 인사말 자료는 과거 5페이지 내외에서 1페이지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일상화되어 있던 간부들의 행사장에서의 이동동선을 그리는 관행도 없어짐

○ 불필요한 자료, 문서와 함께 대면보고하던 관행도 전화나 메세지를 활용한 실용적인 실시간 보고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실국장이 장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문화가 새롭게 정착됨

○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참석자 전원이 착석한 후에 주재자를 모셔왔던 관행도 사라져, 회의의 정시 시작이 보편화 되었음

* 12월 이후 개최된 모든 간부회의(총 8회), 기획조정회의는 총 5회중 4회 정시 시작

○ 한편, 일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된 '이달의 우수부서' 시상제도를 통해 정책, 창의, 집행, 활동 등 각 부문별로 2개 부서씩, 총 8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되면서, 부서간 선의의 경쟁이 촉발되어 열심히 일 하는 문화가 조직 전체에 확산되고 있으며, 정책 이외에 집행, 활동 등의 분야에도 우수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함

* 작년 12월에는 우체국금융 수수료를 하향조정하여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킨 예금사업팀이 집행 분야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1월에는 눈에 보이는 에너지(See+Energy), 국민의 참여를 통한 시너지(Synergy)라는 의미의 캠페인을 진행하여 다양한 에너지시설을 체험한 국민들이 SNS를 통해 소감을 전달하는 창의적인 홍보를 실시한 에너지자원정책과가 창의 분야 우수부서로 선정됨

□ 다만, 온나라시스템 사용, 현장방문 활성화, 연가 편하게 활용하기 등 일부 과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1월중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 문서 생산실적이 전월에 비해 2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메모보고는 173% 증가하여 온나라 시스템 사용이 확산 추세이나, 온라인 일정공지나 지시사항 등을 활용한 간부는 33명중 9명에 불과하여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장방문, 연가 편하게 활용하기 등도 간부들의 인식전환 미흡으로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일 하는 방식과 관련된 집단적 타성 제거 이외에도, 공무원·공급자 중심의 행정관행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그 동안 주최자, 고위직 중심의 행사진행방식이 참석자 모두가 주인공으로 동참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 2.2일 개최된 신재생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는 신입사원, 현장근로자 등이 같이 참여하여 새해소망을 발표하는 한편, '화합의 장'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신재생 에너지 관계자들이 함께 공연을 펼치는 등 참가자 모두가 행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 업종별 간담회 등 장관이 참석한 기업인·국민과의 간담회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남

- 1월 이후 개최된 5차례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장관이 직접 각 부서의 검토결과를 확인한 후, 친필로 사인하여 참석자에게 회신함으로써 민원과 애로사항이 확실하게 해소되고 있음

*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중견기업 사장은 간담회를 준비한 과장에게 문자를 보내 건의사항 답변을 장관 친필서명과 함께 보내주어 큰 격려가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는 한 간부도 30년간 근무하면서 이러한 답변서한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직원들에게도 이를 보여주니 직원들도 좋아했다고 밝힘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스템 활용, 현장방문 활성화 등 간부들의 의식·행동변화가 요구되는 일부과제는 추진이 미흡하며, 집단적 타성 제거와 관련된 여러 과제들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어느 한 과제도 완벽히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

○ 한편, 업무방식과 관련된 집단적 타성 이외에도 정책 수립·집행 과정과 관련된 집단적 타성이 많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발굴하여 개선해야할 필요성도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앞으로 지식경제부는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월별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예산편성, R&D 등 정책 수립·집행에 관련된 집단적 타성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

○ 특히, 2월에는 장관을 비롯한 간부급 직원 전원이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사업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봄으로써 국민·기업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

※ 별첨 : 2월중 1급 이상 간부별 사업신청서 작성체험 계획(안)

[붙임] 1급 이상 간부별 사업 신청서 작성체험 계획(안)

직위	신청서명
장관	광역선도사업 신청서
1차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사업 신청서
2차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산업경제실장	ATC사업 신청서
성장동력실장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무역투자실장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청약 신청서
산업자원협력실장	양자산업협력 사업신청서
에너지자원실장	원자력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 신청서
무역위상임위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